

로버트 피터슨 박사, 신학 본론, 5차 세션,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의 교리 또는 신학 본성에 대한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합니다.

우리는 당신만이 신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열어주신 성령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두 번이나 시벨리우스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잠깐 막혔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 말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시다. 듣는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 그럴
겁니다.

시벨리우스는, 제가 지금 찾아보고 기억하기로, 모달주의적 군주주의 또는
모달리즘의 주요 대표자 중 한 명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모달리즘은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결국 거짓 가르침으로 끝났습니다.
예,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역사를 통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한 분의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 복음서, 예수의 지상 생활에서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연속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한 분의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세 분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벨리우스는 매우 유명한 모달리스트 입니다 . 사실, 매우 유명해서 모달리즘의 또 다른 이름은 시벨리우스 주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조사, 역사적 정찰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서방의 왕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정통성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지만, 범주를 초월하는 단순하고 분할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그의 개념은 항상 존재하는 배경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출발점 으로 삼은 전통 , 즉 동방 전통과 대조적으로 그는 신성한 본성 자체로 시작합니다. 그는 본질을 실체보다 선호하는 것은 이 단순하고 불변하는 본성 또는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속성을 가진 주체를 암시하는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은 그의 속성과 동일하며, 이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이 단순하고 불변하는 본성 또는 본질입니다. 삼위일체의 통일성은 따라서 전면에 명확히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종속주의는 엄격하게 배제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 대해 긍정되는 것은 세 인격 각각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긍정되는데, 왜냐하면 각각을 구성하는 동일한 본질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성 측면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도 성령보다 크지 않으며, 세 인격 중 어느 한 인격도 삼위일체 자체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인격, 세 인격의 한 신, 그리고 한 신을 구성하는 세 동등한 인격에 대한 참된 교리입니다. 신성한 본성의 일체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서 여러 가지 추론이 따릅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속(種)인 인류에 속하는 세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세 개의 별개의 개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신성한 인격은 다른 인격이나 신성한 실체 자체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신은 빅토리누스가 그를 삼중적, 삼중적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올바르게 묘사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 인격의 결합을 암시했지만, 삼위일체이며, 인격은 각각 서로 내주하거나 함께 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그 자체로 신성한 본성에 속하는 것은 언어의 엄격함에서 볼 때 단수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본성은 독특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적인 후자의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말했듯이, 각 인격은 창조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영원하며 등등하지만, 창조되지 않고, 무한하고, 전능 하고, 영원하며 등등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셋째, 삼위일체는 단일하고 나눌 수 없는 행동과 단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용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연적 질서와 관련하여, 세 인격은 하나의 원리로 행동하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 뛰어난 사람의 놀라운 정통성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본성의 차이가 없는 곳에는 의지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성서에 기록된 신현을 이전의 교부 전통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로지 아들의 현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아들 또는 성령에게, 때로는 아버지에게, 때로는 세 분 모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 분 중 어느 분에게 묘사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은 그의 이론이 시사하는 명백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세 인격의 여러 역할을 지워버리는 듯합니다. 그의 답변은 아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태어나고, 고통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협력하여 성육신, 수난,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는 성부와 의 관계로 인해 나타나 보이고 보이게 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 다시 말해, 각 인격은 특정한 방식으로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격의 외부적 작용에서 그 기원에 따라 그에게 적합한 역할을 각 인격에게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후대 서양 신학자들이 차용이라고 묘사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격 안에서의 상호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인격의 구별로 이끕니다. 그들은 동일하고 신성한 실체로 간주되지만, 아버지는 아들 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로 구별되고, 아들은 낳아졌기 때문에 아들로 구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구별됩니다.

그는 그들의 공통된 선물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일종의 교제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함께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거스틴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정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용어에 대해 분명히 불만을 품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별개의 개인이라는 암시를 전달했을 것이다. 결국 그가 현재의 관례를 채택하기로 동의한다면, 그것은 양식론에 반대하는 세 가지의 구별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는 세 인격이라는 공식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언어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의 실체적 이론은

원래의 것이었고, 서양 삼위일체론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세 인격은 실체적이거나 본질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공식화한 동기는 아리아 비평가들이 제기한 교활한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체계에 근거하여 신격 내부의 구별, 신격 내부의 구별이 존재한다면 본질 또는 우연의 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자는 불가능했습니다. 신은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세 가지가 독립적인 실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2주간의 상인 중세 서양 신학에 영향을 미쳤으며, 실체와 우연을 구분했습니다. 이 강단의 실체는 그 본질입니다.

그것은 설교단의 본질, 설교단의 정수, 설교단을 설교단으로 만드는 것에 참여합니다. 이 설교단의 우연은 정확한 모양, 색상, 무게 등입니다. 맞죠? 하지만 물고기는 설교단의 본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자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그럴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지만, 본질이나 실체가 무언가에 본질적인 것이고 우연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그 본질이나 실체를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입니다.

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대한 이해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실체화, 즉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바뀌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 즉 우리 눈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우리가 만지고 소비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기적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본질이, 말하자면 실체가 변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지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 교리이지만, 저는 본질 또는 실체와 우연 사이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분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와일리-아리아인들은 이 문제로 정통파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인격들이, 만약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실체이거나 사고여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은 사고가 없습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것들이 실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 개의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아리아인에게는 삼신론, 다신론, 그리고 여러 신처럼 들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자율주의자를 모두 거부하고, 관계의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세 가지가 그것들을 낳고, 낳아지고, 진행되거나, 그것들을 낳은 신성 안에서 부여되는 요소만큼 실재적이고 영원한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가 무엇이든, 다른 하나 또는 둘 모두와 관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관계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별개의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격의 삼위일체의 일부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기술 철학을 배우지 않은 이상, 위, 오른쪽, 보다 큰 등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실제 실체를 갖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객관성, 즉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더 친숙했습니다. 플로티노스와 포르피리우스가 모두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 이론의 장점은 그가 새로운 언어 수준에서 신에 대해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설에 빠지지 않고 신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거스틴은 영의 행렬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이 아들의 생성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하는 데 항상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사랑이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본질적 유대감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관된 가르침은 그가 말했듯이 그가 둘 다의 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들 중 하나의 영이 아니라, 둘 다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이 성경의 명확한 전달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단일 원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둘 다 성령과 동일한 관계이기 때문이며, 관계의 차이가 없는 곳에서는 그들의 작용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이전의 서방 교부들보다 더 명확하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중으로 흘러나온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라틴어로 filioque, filio , son, quae , and입니다. 중요한 filioque 절은 동방과 서방을 구분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동방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출발점과 신격으로서의 아버지 에 대한 강조를 강조합니다. 저는 동방이나 서방의 교부들이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다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성령이 모두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므로 두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반대에 대답하면서, 그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전자는 낳아졌고, 성령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그가 낳아진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둘 다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둘 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의 행렬의 저자이신데, 그가 그런 아들을 낳으셨고, 그를 낳으심으로써 성령이 나오는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 을 베푸는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두 가지 근원이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부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행위는 공통적이며, 창조에서 세 인격의 행위도 공통적이다. 나아가, 이중 행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성령을 부여하는 능력을 얻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초적인 근원으로 남는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격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종류의 것을 계속한다.

우리는 통일을 확언하고, 평등을 확언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에게 일종의 우위를 줍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가장 독창적인 기여, 즉 인간 영혼의 구조에서 도출한 유추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의 기능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계시록은 절대적인 일체성과 세 가지의 실제적 구별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삼위일체의 흔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신의 생각에 참여함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것을 창조한 삼위일체를 아무리 희미하게나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형상을 보기 위해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신이 “우리, 즉 셋이여,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외적인 인간, 즉 감각적 본성으로 고려된 인간, 그의 감각이 지배적인 인간조차도 삼위일체와 일종의 유사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 과정은 동시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세 가지 별개의 요소를 산출하며, 첫 번째 요소는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요소를 낳고, 세 번째 요소는 다른 두 요소를 함께 묶습니다. 그것은 외부 대상, 마음의 감각적 표현, 그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의도 또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대상이 제거되면 우리는 두 번째 삼위일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 안에 완전히 위치하기 때문에 훨씬 우월하고,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기억 인상, 내적 기억 이미지, 그리고 의지의 의도 또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격의 실제 이미지를 위해 우리는 내면의 인간 또는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인간, 그의 합리적 본성 또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그에게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적인 부분입니다.

Trinitate 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원칙적인 삼위일체적 유추는 , 요한의 명제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서 출발점인 사랑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대상,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로 묶거나, 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하는 사랑으로 드러났다고 종종 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추를 설명하면서, 그는 그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며, 기껏해야 잠깐 엿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논의는 매우 간략하며, 내면의 인간에 기초한 그의 가장 중요한 유추로의 전환에 불과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더 좋게는 신에게 지시된 마음의 활동입니다. 이 비유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그를 매료시켰기 때문에 고백록과 같은 초기 작품에서 우리는 그가 존재, 앎, 의지의 삼위일체를 숙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De Trinitate 에서 그는 이를 세 가지 연속적인 단계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결과 삼위일체는 a.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b. 기억, 또는 더 적절하게는 마음이 잠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이해, 즉 이 자기 지식의 과정이 시작되는 영원한 이성과 의지 또는 자기 사랑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 c. 신 자신을 기억하고, 알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정도로 세 가지 실제 요소를 드러내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형이상학적 인격에 따르면, 이 요소들은 조정되고 따라서 동등하며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들 각각은 신성한 인격들의 상호 관계에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 유추 중 마지막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밝혀진 세 가지 요소는 세 삶이 아니라 한 삶이고, 세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며, 따라서 세 가지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모든 힘을 다해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집중했을 때에만 죄로 인해 타락한 창조주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이러한 비유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그 설명적 의미를 끌어내는 동안, 어거스틴은 그 엄청난 한계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첫째, 인간의 정신 속의 신의 이미지는 어쨌든 멀고 불완전한 이미지이며, 실제로 유사하지만 아주 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태양 속의 것과 거울 속의 것은 다릅니다. 둘째, 인간의 합리적 본성은 위에서 언급한 삼위일체를 보여주지만, 신성한 삼위일체가 신격의 본질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인간의 존재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Whew! 이게 혼란스럽다면, 인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천재 범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그들은 인간이 소유한 능력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반면, 신성한 본성은 완벽하게 단순합니다.

그것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의 추론으로, 기억, 이해, 의지가 인간 정신에서 가장 위대한 삼위일체적 반영인 반면, 기억, 이해, 의지가 별도로 작용하지만, 세 인격은 상호 내재하며, 그들의 행동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격에서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은 인격이지만, 인간의 정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이미지는 한 인격이지만, 최고의 삼위일체 자체는 세 인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인격이 마음 속의 삼위일체보다 더 분리할 수 없이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역설입니다. 이미지와 삼위일체 자체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사도가 우리에게 지상에서 우리는 거울로 희미하게 본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오직 그 후에야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우! 어거스틴의 비유에 대한 작업은 신학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큰 존경을 받고 연구되고 있으며, 그 통찰력과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비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유명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종종 니케아 신조라고 불립니다.

325년의 니케아 신조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부의 진전의 많은 부분을 요약합니다. 여기 신조가 있습니다.

저는 Robert Lethem의 The Holy Trinity에 대한 훌륭한 책에 나오는 번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8년에 쓰여진 The Search for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the Arian Controversy, 318-381에서 RPC Hanson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교부 공의회에 따라 업데이트되고 완성된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모든 시대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지 만들어지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시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왕국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올 시대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몇 가지 코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은 항상 세 인격으로 존재해 온 한 분의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은 나뉘지 않습니다. 이는 신성한 단순성의 한 측면입니다. 따라서 각 인격은 전적으로 신이며, 모든 신은 각 인격 안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한 본질입니다.

그들은 동일 본질입니다. 교부들이 기원의 언어를 사용할 때, 아버지는 독생자인 아들을 낳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거나 보내집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인격들이 창조된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언어는 인격들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령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조가 성령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다고 말할 때 성령의 인격성을 가르칩니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닌 오직 사람만이 말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행한 일입니다. 신조는 또한 성령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첫째, 그것은 그를 신성한 이름인 주님으로 부릅니다. 둘째, 그것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를 그에게 돌립니다. 셋째, 그것은 성령에게 창조와 구원의 신성한 일을 돌립니다.

그가 생명 주는 자, 창조에 육체적 생명을 주고 구원에서 영적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조사를 다시 한 번 초기 교회의 가장 저명한 신학자이자 서구 기독교의 발전을 형성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고백록, 신의 도시, 삼위일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사용과 즐거움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가장 높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를 즐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심지어 다른 좋은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에서 충만함을 찾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리론에서 인용한 *De Doctrina* 는, 그는 개종하기 전에 수사학을 가르쳤고,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변호사들에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On Christian Doctrine*에서 그는 400년 이전의 보편 교회인 가톨릭 소문자 C의 믿음을 요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해석학에 대해 매우 유익하게 이야기하고, 수사학 교사로서의 그의 위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설교학에 대한 섹션도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작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즐거움의 대상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며, 이들은 동시에 삼위일체이며, 모든 것 위에 있고 그를 즐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들은 모두 한 하나님이시며, 그들 각자는 그 자체로 완전한 실체이시지만, 그들은 모두 한 실체입니다. 성부는 성자도 성령도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도 성령도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지만, 성부는 오직 성부일 뿐입니다. 성자는 오직 성자일 뿐이고, 성령은 오직 성령일 뿐입니다. 이 세 분 모두에게 같은 영원성, 같은 불변성, 같은 위엄, 같은 능력이 속해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오직 아멘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천재가 몇 명 있는 건 좋은 일이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 주변을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부자도 많지 않고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지 같은 것들을 택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는 인간의 힘이나 부나 지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이 점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삼중일체이심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탐구하면서, 우리는 일곱 가지 진술을 풀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1번. 2번,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아들은 하나님이다. 넷째, 영은 하나님이다. 다섯째, 성부, 성자, 영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된다.

여섯,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내주합니다. 일곱,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고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주지 않지만, 그 일곱 가지 진술을 합치면, 으악, 그들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일신교, 즉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6:4, 5. 모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것이 계명입니다. 신명기 6:1, 법도와 규칙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를 행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아들의 아들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법도와 계명을 평생토록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은 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주의하여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네게 잘 되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크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라 .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말하며 네 손에 표징으로 매어 두라.

정통 유대교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눈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집 문설주와 당신의 문에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의미는, 성경은 고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 등등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6:4, 5는 우리의 기초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 교리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니 들어라.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배타성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단일성도 암시합니다. 주님은 재앙과 탈출에서 이집트의 소위 신들과 맞서 싸우고 패배시켰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전에 모세는 신명기 4:35에서 하나님의 독특성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보여졌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신명기 4:35.

만연한 고대 근동 다신교 가운데, 만연한 고대 근동 다신교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인, 암몬-레를 경배하는 이집트인, 마르두크에게 헌신하는 바빌로니아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만을 믿는다고 공언합니다(신명기 6:4, 5).

이스라엘은 일신교를 공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하나님의 백성은 온 존재와 온 소유로 그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6, 7절). 야고보서 2:14~26. 루터는 야고보와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식탁 대화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형태로 전해지는, 그와 케이티는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청구서를 내는 것을 도와야 했고, 학생들은 식탁 주위에 모였고, 그는 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그의 말을 지혜의 진주로 여겼고, 거기에는 진주가 몇 개 있었지만, 그가 때때로 지미를 불 속에 던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지혜의 진주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제임스를 정경에서 제외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포괄적인 신학적 원리였고, 특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원리, 윤리적 원리, 해석적 원리, 심지어 정경적 원리였습니다. 제임스는 제외되지 않았지만, 끝부분에 두었습니다.

칼빈은 루터를 종교 개혁의 사도로 여겼고, 야고보서 2장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루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루터를 언급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불협화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칼빈이 정확히 옳습니다.

사실, 바울은 때때로 비슷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의 경우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야고보서 2:14-26에서 피스티스 또는 믿음은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 없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악마들은 하나님의 일체성을 고백하고, 악마들은 신명기 6:4, 5, 6, 4에서 시작되는 세마를 말합니다 .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바울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에서 칭의를 볼 때,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는 때때로 행위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에베소서 2:10에서 8절과 9절에 이어서 믿음만과 은혜만, 그리고 모든 것을 강조하고, 디도서에서도 같은 내용, 은혜만, 믿음만, 행위, 행위, 행위가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위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타당성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좋은 구절입니다. 행위 없이 당신의 믿음을 보여 주시면, 저는 당신에게 제 믿음의 고백의 타당성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라합은 야훼를 믿는다고 공언할 뿐만 아니라, 라합은 물론,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자신의 공언을 입증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정당화라는 단어조차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용례와 더 일치하는데, 초기 유대 기독교 작가이자 서신을 쓴 저에게는 말이 됩니다. 바울의 경우, 정당화는 보통 구원의 시작을 보는 반면, 야고보는 구원을 끝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행위로 증명한 그의 백성을 보증하고, 옹호하고, 정당화합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하나님의 일치가 유대교의 기본 교리임을 깨달은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야고보는 악마조차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구약과 조화를 이루는 신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신학을 정찰할 때, 우리는 교회를 항상 보았고, 출발점은 하나님의 통일성이었습니다. 삼신론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움은 예수님과 심지어 성령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의 일치에 대한 고백과 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는 세 신이 있어야 한다거나 두 신이나 세 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잠시 쉬기 전에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5, 6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장, 6장. 바울은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일치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4:35, 신명기 6:4,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다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제시하면서 덧붙입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치를 확언하면서, 신격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달리즘에 반대하여, 교회는 거기에, 이것들이 그의 존재의 세 가지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 양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세 가지 양식이 하나님을 구성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교회 교리 성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양태론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태론적 성명입니다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신이고 누가 신을 드러내는지, 그런 식으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서 영원에 대한 교리를 구축하기 위해 일곱 가지 진술 중 첫 번째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영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삼위일체, 아우구스티누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